

第144回國會

5·18光州民主化運動 會議錄  
真相調查特別委員會

第 9 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8年11月20日(日)  
場 所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室(145號室)

議事日程

1. 5·18光州民主化運動의真相糾明을 위한聽聞會

審査된案件

1. 5·18光州民主化運動의真相糾明을 위한聽聞會(계속).....1面

(零時1分 開議)

○委員長 文東煥 第9次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委員會를 開議합니다.

1. 5·18光州民主化運動의真相糾明을 위한聽聞會 (계속)

○委員長 文東煥 議事日程 第1項 5·18光州民主化運動의真相糾明을 위한聽聞會를 開議합니다.

이제 訊問을 權海玉委員 계속해 주십시오.

○權海玉委員 다시 質問하셨습니다.

證人께서는 1980年5月8日 19時頃 지난번에 가지고 간 300萬원중 280萬원을 全南大 尹漢瑋에게 전해 주고 全南大 시위에 사용토록 하였는데 朝鮮大活動資金 200萬원이 더 필요하다고 듣고 金大中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겠다고 200萬원을 鄭東年에게 전하면서 앞으로 金大中을 위해서 힘껏 활동해 주기 바란다 하면서 특별한 중요한 또 일이 있으면 電話 또는 직접 상의하여 얘기하자고 하였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證人 金相賢 사실이 아닙니다.

○權海玉委員 그러면 이것이 전부 조작되었다고 한다면은 本委員이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증거도 다 있습니다. 證人께서 自述書 쓰신 것도 있습니다.

이 搜查記錄이나 證人의 鄭東年 500萬원 授受分에 관해서는 自筆陳述書도 있고 또 특별히 鄭東年은 軍司法 警察搜查段階에서 13回 軍檢察 搜查段階에서 2回 裁判部 앞에서 3回 등 도합 18회에 걸쳐서 是認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8회에 걸친 陳述書內容을 조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證人 金相賢 100% 조작했고요 鄭東年이가 그래서 자살까지 하려고 동맥을 끊었다고...

○權海玉委員 아니 증거가 다 있는데요?

○證人 金相賢 그것은 權委員님께서... 拷問을 당한 경험이 없으신 모양같은데요 그 분위기에 가면 項羽같은 壯士라도 절대 거기서는 배어나지 못합니다.

○權海玉委員 좋습니다. 證人은 지난 1963年 8月頃에 海外僑胞研究所를 設立한 사실이 있지요?

○證人 金相賢 예.

○權海玉委員 왜 설립하였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줄 수 있겠습니까?

○證人 金相賢 제가 6代國會議員으로 1965年度에 議會에 進出했는데 國會에 와서 보니까 그 당시까지 우리가 海外에 있는 同胞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政府가 전혀 거기에 대한 政策的인 대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海外僑胞問題研究所를 만들어가지고 海外에 있는 同胞들에 대한 權益이라든가 우리 韓國에 있는 母國과 海外同胞와의 關係를 더욱 유대를 강화시키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研究를 갖다가 專門人들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 德으로 해가지고 제가 72年度에 “在日僑胞80年史”를 썼고 昨年에 제가 “在日同胞100年史”도 제가 冊으로 저술해낸 사실이 있습니다.

○權海玉委員 時間이 없기 때문에 答辯은 될 수 있으면 간단히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證人께서는 在日僑胞인 裴東湖와 郭東儀라는 사람을 아시지요?

○證人 金相賢 제가 在日僑胞 實態調查次 가

가지고 郭東儀라는 분을 제가 證人으로 불러 가지고 陳述書를 녹음한 것이 아마 지금도 僑胞問題研究所에 있을 것입니다.

裴東湖도 그 당시 제가 證人으로... 在日僑胞 實態調査 가가지고 한 것 아마 녹음된 것이 지금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海玉委員 그분들의 정체는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證人 金相賢 그런데 이것은 제가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民團의... 최초의 民團의 親政府派하고 反政府派하고 소위 말해서 對立이 심화돼가지고 裴東湖씨 관계가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이 一般的인 在日僑胞 專門家들의 분석인데 이 중에서 제가 日本에 가가지고 우리 政府에 있는 官吏들의 말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郭東儀라는 사람은 以北에 갔다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郭東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政府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었고 또 우리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郭東儀 그 사람은 혹시 以北갔다 온 사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具體的인 증거는 물론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權海玉委員 예. 좋습니다. 證人께서는 1971年 大統領 및 國會議員選舉 이후에 日本을 가려던 金大中總裁에게 在日居留民團의 主導權 爭奪問題로 紛糾가 있다는 사실과 소위 「베트공」派라고 불리는 郭東儀라는 사람 朝總聯에서 資金을 받는 등 朝總聯의 배후 조종을 받아서 활동한다는 말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金大中總裁에게 告知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證人 金相賢 그것이 具體的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金大中先生하고 僑胞問題를 가지고 얘기했다면 裴東湖씨까지는 얘기하지 않았겠지만 郭東儀씨 관계는 조금 잘못하면 악용당할 염려가 있으니까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있었겠지요. 제가 누구에게나 그런 정도는 얘기합니다.

○權海玉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1979年6월에 말이지요. 僑胞問題研究所 事務局長으로 있는 이구홍씨로부터 韓民統이 大法院判決에 의해서 反國家團體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金相賢 예.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權海玉委員 들은 사실이 있지요?

○證人 金相賢 예.

○權海玉委員 또한 1979年9月頃 全南 九禮 華嚴寺에서 당시 駐日特派員이었던 허운도記者와 만나서 朝總聯의 배후조정을 받고 있는 韓民統은 不純 反韓團體인데 金大中總裁가 韓民統 議長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요?

○證人 金相賢 허운도씨로부터요?

○權海玉委員 예.

○證人 金相賢 그것은 日本記者하고 같이 그때 그 당시에 허운도씨가 朝鮮日報 外信部次長인가 있을 때인데 같이 만난 것은 기억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具體的으로 얘기한 것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權海玉委員 79年度입니다. 華嚴寺...

○證人 金相賢 예. 華嚴寺에서 日本外信記者하고 같이 여행했다가 저도 같은 여행인데 똑같은 場所에서...

○權海玉委員 예.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證人께서는 1980年2월에 東橋洞 金大中總裁를 방문하여 韓民統이 大法院判決에 의해 反國家團體로 규정된 이상 議長職을 辭任해야 하며 이번 기회에 海外에 있을 때 僑胞團體에 관련된 모든 직책은 모두 辭任해야 한다고 권유한 사실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金相賢 제가 國內에서 政治活動을 하려면 海外關係는 전부 다 무슨 關係에 있으면 다 辭任하는 것이 이것이 좋다고 말씀하니 金大中先生이 韓民統關係部分에 대해서는 그게 議長이고 뭐고 수락한 사실이 없다 그런 말씀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權海玉委員 그러면 말이지요 證人께서는 金大中總裁에게 裴東湖 郭東儀가 朝總聯의 배후 조종을 받는 者라고 告知하였음에도 왜 金大中總裁는 그들과 함께 韓民統을 결성하였다고 생각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證人 金相賢 제가 裴東湖씨까지 朝總聯關係... 무슨 使嗾받았다 돈받았다 하는 것은 제가 얘기한 사실이 없고 郭東儀씨는 과거... 그 당시 제 얘기는 60年代末 70年代初 얘기입니다. 中央情報部에서 파견되어 있던 그 당시 金某 公使란 분이 저보고 한번 점심을 日本

서 먹자 하더니 郭東儀에 대해서 참 이것은 우리가 증거를 그때 못잡았는데 北韓에 갔다 온 것이 틀림없는데 이것을 증거를 못잡고 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朝總聯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얘기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는 日本에 가는 혹시 우리 동가들이라도 있으면 좀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郭東儀는 조금 이런 사람을 만나는 데는 경계해야 된다 하는 정도는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權海玉委員 예. 좋습니다.

어제 金大中總裁께서 光州特委의 證人臺에 나셨습니다. 본인도 말씀하기로 젊은 시절에 木浦에서 建國準備委員會에 加入해 가지고 당시 左翼政黨인 신민당에 加入하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소 證人과 막역한 사이이기 때문에 金大中總裁의 思想問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答辯좀 해 주시지요.

○證人 金相賢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는 金大中先生은 제가 나 인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외람된 일이고 하지마는 제가 한 30年동안 경험해서 알고 보편은 體質의으로 共產黨할 분이 안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대체로 보면 대단히 合理的인 분입니다.

그래서 事物을 주로 客觀的으로 분석을 하고 또 合理的으로 接近方法을 모색하고 뭐 이런 점으로 볼 때 뭐 共產主義라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는 手段方法이 없다 이런 점에서는 나는 金大中先生에 대해서 그 思想이 대단히 건전하고 그것은 과거 韓·日協定때라든가 越南派兵때 그 당시 尹潁善씨가 越南의 派兵은 말이지 將兵들에 대해서 참 피를 판다 해 가지고 할 때 그때 金大中先生은 저도 갔습니다마는 朴順天 우리 民主黨 다 감시다 해 가지고 派越將兵慰問까지 갔는데 大韓民國의 國會議員이고 國內에서 그런 「사꾸라」로 물리면서까지 派越將兵慰問을 가는 분이 그런 분이 共產黨이라면 그런 共產黨이 앞으로 많이 있어야지요.

○權海玉委員 아니 그런데 젊을 때 자기도 시인한 적이 있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證人은 1980年3月5日 鍾路區 정신洞 장사「빌딩」 306號室에서 韓國政

治文化研究所를 設置하여 所長으로 就任을 한 적이 있지요?

○證人 金相賢 예.

○權海玉委員 그 會員數가 5,000名이라고 들었는데 얼마나 됩니까?

○證人 金相賢 지금 뭐 사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상당한 수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權海玉委員 그 研究所의 設立趣旨와 目的이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시지요.

○證人 金相賢 예. 아까 우리 玉滿鎬委員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요는 우리 韓國의 政治文化를 소위 權威的인 政治文化속에서 우리가 民主的인 政治文化를 창조한다는 어떤 政治人들의 하나의 道場을 만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權海玉委員 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金大中總裁의 執權을 위한 前衛隊의 역할을 할 수 있는 私組織의 構成體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과 다를니까?

○證人 金相賢 그러면 그 당시 어느 기회가 되어 가지고 이제 民主憲法이 改正이 되고 大統領選舉가 있다면 金大中先生이 大統領에 必勝하는데 하나의 좋은 組織으로 동원될 수도 있었겠지요.

○權海玉委員 證人께서는 1980年 3月下旬頃 金大中總裁의 自宅에서 金總裁로부터 次期大統領으로 執權하는데 필요한 組織基盤을 구성하는 일이 시급하므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변조직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金相賢 전혀 그런 지시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權海玉委員 없어요?

○證人 金相賢 예.

○權海玉委員 그리고 證人은 1980年 3月頃 金大中總裁의 執權을 위해서 두가지 政治戰略報告書를 作成한다고 했는데 그런 作成한 적이 있습니까?

○證人 金相賢 막연한 政治戰略報告書라면 모르지마는 제가 그 당시 金大中先生의 參謀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에너지」문제라든가 安保問題라든가 또 金大中先生이 新民黨에 入

黨을 어느 시기에 하면 좋느냐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제 주변의 參謀들이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제가 좀 보고 修正할 것은 修正해서 金大中先生한테 수시로 좀 갖다가 드려가지고 드리면 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또 전연 보지도 않고 그냥 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자주 있었읍니다.

○權海玉委員 예. 本委員이 알기로는 말이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新民黨의 暴力事態는 金泳三總裁의 指導力量이 부족하므로 金大中總裁께 유리하고 共和黨의 逆風事態는 維新殘黨의 策動이기 때문에 金鍾泌總裁께 불리하다는 내용과 金大中總裁는 過渡政府가 노리는 虛實의 노출을 억제하고 암암리에 조직을 강화하고 表面的 大義名分을 앞세워 「이미지」를 부각시켜 自體勢力을 확장하고 宗教界 學界 青年黨員 등을 규합하여 「D」데이」를 정하고 政治日程約束履行 및 戒嚴令의 早速解除를 요구하면서 일시에 汎國民的으로 확산하여 총질기하면 된다라는 내용이라는 報告書인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證人 金相賢 그 報告書 앞부분은 대체로 그런 건데요. 뭐 「D」데이」를 정한 것은 그것은 中央情報部에서 搜查機關이 쓴 用語를 어떻게 표기……

○權海玉委員 아니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는데 조작한 것입니까?

○證人 金相賢 예.

그것은 전연… 그 原本을 여기다 제시해 주시면 알자만은 中央情報部에 그것 있습니다. 原本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權海玉委員 예. 됐읍니다.

또 하나는 말이지요. 金大中總裁가 新民黨에 入黨問題分析과 對應策으로서 5月初 내지 5月中旬사이 「D」데이」를 잡는다 그때는 大學生들의 學園內의 淨化가 끝나고 政治問題에 눈을 돌릴 것이며 改憲試案 內容이 政局과 一般輿論에 회오리칠 것이다. 국민의 여망을 金大中總裁께 완전히 넘겨주는 事態까지 물고 갈지 모른다라는데 그 사실은 기억이 안 나니까?

○證人 金相賢 저는 그 당시에 法廷에서 金大中先生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新民黨入黨保留問題에 대해서 金相賢이도 新民黨에 入黨을 反對했다 그런 말씀을 한 것을 들었는데 사

실 그것은 金大中先生이 잘못 아시고 얘기한 것 같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報告書를 낸 것이 있습니다.

金大中先生은 民主黨에 入黨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뭔가 金大中先生이 바라는 그런 政府案이라든가 民主化日程을 같이 해 가지고 소위 政黨을 母體로 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런 報告書를 낸 것을 아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權海玉委員 예. 證人께서는 그 報告書를 언제 金大中總裁께 報告를 했으며 그 評價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證人 金相賢 그런데 그 당시에 金大中先生이 日程이 많으시고 해 가지고 제가 알기에 아마 그것을 보시지도 못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權海玉委員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答辯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證人은 1980年 3·4월에 金大中씨로부터 憲法改正과 政府形態 政治指導者像 등에 관한 輿論調査를 지시를 받고 金大中씨와 李宅敦씨로부터 200萬원을 받아가지고 1980年 4月1일부터 10日間 全國 10個市道에 調査班을 파견해서 輿論調査를 하였다는데 사실이지요?

○證人 金相賢 예. 輿論調査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것은 李宅敦議員한테 제가 돈을 100萬원인가 받은 것은 사실인데 金大中先生한테는 제가 政治生活 한 20년이상 같이 하지만 그 어르신한테는 제가 돈을 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정도는 제가 金大中先生이 저한테 지시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가서 항상 내가 金大中先生에게 報告했지 金大中先生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제가 政治活動을 움직이고 指示 안하면 놓고 저는 그런 政治生活을 하지 않았읍니다.

○權海玉委員 예. 됐읍니다. 그 輿論調査結果가 어떻게 나왔으며 또 그 計劃을 어떻게 수립했습니까?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세요.

○證人 金相賢 예. 輿論調査는 그때 제가 그 李宅敦議員에게 輿論調査의 設問關係를 좀 만들어달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소위 3金씨 關係에 대해서 輿論調査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뭐 이것이 무슨 客觀的이라고

뭐 볼 수도 있고 또 아무리 해도 제가 政治文化研究所하기 때문에 편견도 포함되어 있고 또 실지로 훈련받은 그런 輿論調査員도 아니겠습니까마는 그때 그 結果가 金大中先生이 다음에 大統領 出馬하면 대단히 可能性이 있는 분이다 뭐 이렇게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對外的으로는 절대 밝히지 말자 해가지고 그것은 밝히지 않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金大中씨한테 報告를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에서 5.17나 가지고 아마 이것 나와 가지고 한 일주일 못 되어서 5.17만난 것 같습니다.

○權海玉委員 예. 됐습니다.

證人은 金大中 秘書室名義로 각종 刊行物册子 錄音「테이프」 宣傳物등을 多量으로 配布해가지고 그것을 여러가지 學生들에게 많은 配布를 했는데 그 기억이 나십니까?

○證人 金相賢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權海玉委員 예. 證人은 이와 같은 內容册子와 錄音「테이프」등 많은 宣傳物을 配布한 것이 과연 學生들이나 市民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相賢 그 「팜플렛」內容이나 그 錄音「테이프」內容이 金大中先生이 政局이 安定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基調로 된 內容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돌아가면 돌아갈 수록 政局은 더욱 安定된 方向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權海玉委員 오히려 逆으로 생각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또한 이런 煽動이 과연 光州事態와 같은 이 비극을 自招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안 했습니까?

○證人 金相賢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을 많이 뿌리게 해 가지고 그대로 놓아 두었으면 光州事態는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權海玉委員 그렇게 됨으로 해서 오히려 이 光州事態같은 것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證人 金相賢 그것은 우리 權委員의 견해시고 뭐 客觀的으로 國民이 판단하실 줄로 압니다.

○權海玉委員 좋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本委員의 訊問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李海瓚委員 마지막으로 質問해 주십시오.

○李海瓚委員 平民黨의 李海瓚委員입니다.

오늘 證人으로 나오셔서 늦은 밤까지 고생하시느라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本委員은 證人과 함께 裁判을 받았던 사실도 있고 또 陸軍 矯導所에서 服役을 같이 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證人 金相賢 예.

○李海瓚委員 관련된 여러가지 質問중에서 民主黨 그 다음에 共和黨 民正黨 그 세 분의 委員의 訊問過程을 통해서 金大中證人이 5.18 光州民主化運動을 탄압하기 위한 虐殺過程에 관련이 없다라는 것은 다 立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간단히 事實인 것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에 앞서서 이처럼 명백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도 이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여러 委員 그리고 많은 國民들이 잠을 안 주무시고 고생하시게 된 점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명백한 사실이 거꾸로 國民들에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밤이라도 교정은 하는 것이 앞으로의 歷史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聽聞會 過程에서 全斗煥씨를 비롯한 극소수의 政治野慾에 가득찬 一部軍人들이 5.17「쿠데타」를 자행해서 그에 저항하는 光州의 市民들을 학살하고 또 유력한 政治人을 연행함으로써 나아가서는 憲法機構인 國會의 機能을 停止시키는 內亂罪까지 범하면서 執權을 했던 과정에서 金大中證人과 光州市民들이 內亂을 한 것으로 몰리고 證人께서는 그에 「엑스트라」로 끼었다 라고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立證하는데 이토록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하는가 하는 점을 서운하게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사실만 확인하겠습니다.

證人이 17日 저녁에 情報部에 連行이 되셨지요?

○證人 金相賢 예. 18日입니다. 濟州道에서...

○李海瓚委員 연행이 되셔가지고 鄭東年이 관련된 조사를 받으신 것은 언제입니까?

○證人 金相賢 그것은 정확하게 시간을 모르

겠어요.

○李海瓚委員 本委員이 자료를 전부 檢討해 본 결과 6月 3日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5月18日부터 조사가 시작되어서 처음으로 6月3日 조사를 받았읍니다. 鄭東年씨는 5月18日 연행이 되어서 金大中證人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처음으로 조사를 받은 것은 5月31日입니다. 그리고 金大中證人이 5月20日부터 陳述書를 시작해서 최초로 鄭東年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조사를 받은 것은 6月15日입니다. 결국 이것은 5月31日 證人이 證言한 바와 같이 鄭東年씨를 잡은 拷問을 가해서 허위 자백서를 받아가지고 그 허위자백서를 가지고 證人에게 와서 證人에게도 역시 잡은 협박과 폭행을 가해서 6月3日 虛偽自白書를 받아가지고 두 사람의 虛偽自白書를 토대로 해서 金大中證人에게 6月15日 自白을 강요하도록 한 것으로 推論이 되고 있고 어제 金大中證人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證人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證人 金相賢 그중에서 조금 정정해야 할 것은 아까 제가 證言에서 얘기했읍니다마는 鄭東年에 대한 陳述書關係를 지금 李委員께서 말씀하시는 6月2日인지 3日 鄭東年問題를 나에게 얘기했다는데 제가 그때 斷食을 시작해 가지고 陳述書를 쓰고 무인을 찍지 않고 斷食을 하는 과정이 며칠 지났는데 情報部에서 鄭東年關係는 안하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하고 하다가 제가 6月 그러니까 며칠에 盲腸이 되어 가지고 病院에 갔다가 9일만에 8일인가 9日만에 돌아온 것이 6月19日이예요. 6月19日 오니까 제 陳述書가 마지막 鄭東年部分에 金大中先生과 鄭東年이 나와 일치된 陳述書는 내것은 6月19日이고 金大中先生은 6月15日이고 다시 말하면 鄭東年이가 5月며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맞추어서 그때 작성했다 이것이 지금 李委員께서 記錄調查한 것 제가 6月2日 3日인가 陳述를 일부 했고 그 다음에 막판에는 최후에는 제가 6月19日 와서 그것을 最終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李海瓚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本特委會 政府에서 제출한 資料에 의하면 5月19日 김성

구라는 準司法警察官 陸軍 准尉가 한 認知同行報告書가 있습니다. 그 報告書에 보면은 5月19日 作成日字인데 이미 認知된 諜報에 의해서 5·18 連行同行者를 조사한 결과 證人께서 鄭東年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다라고 그 報告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報告書가 사실이었다고 한다면은 光州에서의 엄청난 慘劇이 벌어지고 있는 期間 동안에 金大中內亂陰謀事件의 中間 搜查發表가 5月22日 있었읍니다.

이처럼 認知同行報告에 의하면 證人께서 金大中證人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鄭東年씨에게 주었는데 이 사실이 왜 搜查結果에 發表되지 아니했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金相賢 그러니까 지금 나에 관계된 내가 지금 그렇게 되어 가지고 처음에 잡혀 갔다는 그 말입니까?

○李海瓚委員 아닙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김성구라고 하는 陸軍 准尉가 쓴 認知同行報告書가 있습니다. 이것은 搜查記錄이 아니고 搜查官이 그냥 報告書를 쓴 것입니다. 그 報告書가 5月19日 作成된 것인데 거기에 보면 이미 證人께서 鄭東年씨한테 金大中證人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준 사실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證人 金相賢 그것을 내가 줬다라는 것을 나한테 확인한 것이 거기 있습니까?

○李海瓚委員 확인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證人 金相賢 없고 자기들이 認知했다...

○李海瓚委員 예. 認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證人 金相賢 5月19日이요?

○李海瓚委員 예. 바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認知했다라고 한다면은 5月 22日 中間 搜查發表에 왜 이 사실을 發表를 안했는지 그것을 本委員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證人 金相賢 이해 못하는 점은 李委員하고 저하고 같습니다. 나도 무슨 말인지 中國 말인지 蘇聯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李海瓚委員 그 다음에 이런 사실을 法廷에서 鄭東年에게 돈을 준 사실을 全面的으로 부정하는 것을 本委員도 봤고 본인도 그렇게 答辯을 아까 하셨지요?

○證人 金相賢 예.

○李海瓚委員 그 다음에 윤효동이라고 하는

자수간첩이 法廷에서 檢察측 證人으로서 나와서 여러 가지 陳述을 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證人이 자수간첩이라고 하면서 北韓의 用語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지요?

○證人 金相賢 그렇습니다.

○李海瓚委員 副部長同志 首領同志 하는 用語를 그대로 사용했지요?

○證人 金相賢 예, 그렇습니다.

○李海瓚委員 자수한 간첩이고 전향한 간첩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副部長同志 南半部 朝鮮 首領同志 이런 용어를 전향한 사람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金相賢 그것은 共產主義 生活를 하도 많이 하면 가끔 가다가 전향을 했더라도 그런 용어가 튀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단 문제는 적어도 軍事法廷에서 金大中씨를 容共分子로 모는데 그 많은 證人을 낼 사람이 없으니깐 간첩을 證人으로서 대가지고 했다는 것이 그것이 참 歷史의 「년센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李海瓚委員 그래서 證人을 비롯하여 여러 재정피고인들이 저런 전향여부가 확실치 않은 간첩을 證人으로서 채택해서 이 중요한 判決을 내리는 證據로 삼는 사실을 항의하니까 그 證人이 檢察官席으로 해서 裁判部 뒤로 해서 도망갔던 사실이 있었지요?

○證人 金相賢 證人이 도망갔다고 하면 내가 도망간 줄 알고……

○李海瓚委員 아니 아니…… 윤희동이라는 당시의 證人이요……

○證人 金相賢 글썽 말이요, 나는 또 내가 도망갔나 해가지고……

金大中선생을 共產黨으로 물려고 했던 그 證人이 도망가고 저는 지금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바로 그래서 그 證人이 한참동안 나와서 다시 證言을 하라고 해도 한 한 時間에 걸쳐서 證言을 못하겠다고 안나온 사실이 있었지요?

○證人 金相賢 그렇지요.

李委員께서도 그때 당시에 같이 被告席에 앉아 있었습니까마는 裁判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사실 檢察측에서 간첩에서 전향된 사람을 한 時間이상 아마 내세우지 못해가지고 裁判

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다음에 證人께서는 2審裁判이다 끝나고 法律審만 남은 그 상태에서 西大門拘置所에서 南漢山城下에 있는 陸軍矯導所로 移監된 사실이 있었지요?

○證人 金相賢 예, 그렇습니다.

○李海瓚委員 이렇게 事實에 관한 心理는 모두 끝나고 法律的인 판단만 남은 大法 上告 狀態에서 陸軍矯導所라고 하는 民間인이 收容되지 않는 矯導所에 金大中 등 內亂陰謀 一黨 24名이 收監됐던 사실이 있었지요?

○證人 金相賢 그렇습니다.

○李海瓚委員 이 一黨들이 다음 해 1月30日 경인가요 大法 確定判決이 난 다음에 전국에 각 矯導所로 移監된 사실이 있었지요?

○證人 金相賢 예, 分散 移監시켰습니다.

○李海瓚委員 證人께서는 慶州矯導所로 가셨지요?

○證人 金相賢 그렇습니다.

○李海瓚委員 서울에서 慶州矯導所까지 가려면은 굉장히 멀었지요?

○證人 金相賢 그렇습니다.

○李海瓚委員 24名의 證人들이…… 아니 그 당시에는 줄어서 16名이 됐습니다. 16名의 당시 一黨들이 緣故地 本籍地와 現住所에서 가장 먼 곳으로 전부 다 배당이 됐었지요?

○證人 金相賢 그렇습니다.

○李海瓚委員 예컨대 本委員은 고향은 忠淸道이고 집은 서울인데 가장 먼 安東으로 移送돼 갔었습니다.

이렇게 16名의 一黨들을 全國 矯導所에 한 명씩 收監했던 사실이 있었지요?

○證人 金相賢 예, 그렇습니다.

○李海瓚委員 矯導所에서는 거의 外部人과 전혀 만나지 못하도록 分離措置를 한 상태에서 收監生活를 했지요?

○證人 金相賢 그렇습니다.

○李海瓚委員 判決文을 언제까지 本人이 가지고 계셨습니까? 判決文 및 諸般 裁判 關係 書類를……

○證人 金相賢 그걸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李海瓚委員 出訴하실 적에 이런 書類를 다 壓收 당했지요?

○證人 金相賢 가지고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李海瓚委員 본인 懲役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懲役 사는 이유가 적혀있는 것이 判決文인데 이 判決文을 出訴 당시에 왜 壓收했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金相賢 이것은 제 個人的인 상식인데 아마 그것이 바깥으로 세어나가 가지고 言論에 報道되면 뭔가 政權擔當者에게 불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소지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내 個人的인 견해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李海瓚委員 그렇게 해서 1982年 겨울에 壓收당한 判決文을 證人께서는 今年 8月 이전에 반환해 받거나 아니면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받아 보실 적이 있습니까?

○證人 金相賢 제가 지금 어떤 경로로 들어온지 몰라도 우리 집에 그런 資料가 요새 좀 있는 것 보니까 아마 좀 일부가 들어왔는지 전체가 들어왔는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李海瓚委員 그것이 今年 8月이후 부터이지요?

○證人 金相賢 예. 그런것 같습니다.

○李海瓚委員 今年 8월에 國會 本會議 質疑問程에서 그 判決文을 반환하라는 本委員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처음으로 8年만에 交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일련의 搜查過程 搜查過程에서의 造作 判決文의 壓收 이 모든 것을 가지고 情況을 판단해 보건대 명백한 造作 특히 光州民衆을 학살하고 그 책임을 金大中證人에게 몰아 세우기 위한 造作된 裁判의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그런 과정이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밝히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證人의 성실하신 證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고맙습니다.

더 訊問하실 委員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金相賢 證人에 대한 訊問을 마치겠습니다.

證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양해 구할 것이 있습니다.

어제 날짜 證人은 출석키로 되어 있던 鄭東年證人과 鄭基用證人은 4黨 幹事協議에 따라 오는 11月26日 토요일로 연기하여 證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會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零時36分 散會)

○出席委員

文東煥	權海玉	金吉弘
朴嬉太	辛卿植	沈明輔
安榮基	李光魯	李肯珪
李道先	李敏燮	鄭東鎬
鄭昌和	金泳鎭	辛基夏
李海瓚	趙贊衡	趙洪奎
崔鳳九	金光一	朴泰權
吳景義	李仁濟	張石和
金文元	金仁坤	王滿鎬
朴燦鍾		

○委員아닌出席議員

金潤煥	張慶宇	金德圭
朴英淑	崔炯佑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專門委員	陳在勳
立法審議官	金永善

○出席證人

周永福	金相賢
-----	-----